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43호 【루계 제25486호】 주체105(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김정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주체105(2016)년 12월 6일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200일전투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가 열리였습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근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령도밑에 농근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입니다.

나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이며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 외곽단체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하신 주체적농민조직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농민동맹을 조직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실현하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여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에서 전환을 이룩하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따라 농민동맹을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농근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농업생산을 늘이고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하는 거창한 실천투쟁속에서 동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시였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의 년대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 농촌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

해방후 수령님의 은덕으로 당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농민들은 농산물증산운동과 애국미헌납운동을 전개하여 당의 건국로선을 충직하게 받들었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적기의 맹폭격속에서도 한몸 서슴없이 내대며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습니다. 전후 어려운 시기에도 농민들은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당의 농업협동화방침을 관철하여 농촌경리를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비약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농업근로자들은 최악의 역경과 시련속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수호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생산적앙양을 이룩하고 알곡과 과일생산에서 좋은 결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전야에 순결한 피와 땀을 묻으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농근맹원들과 전체 농업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은 로동계급과 함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력량이며 오늘 농업전선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여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참다운 주인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당의 의도대로 농업전선에서 통장훈을 불러야 우리의 혁명진지를 반석같이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야 합니다.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농업근로자동맹의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전체 농근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며 동맹건설과 활동을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동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농근맹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는 위력한 전투적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정책적요구에 맞게 조직진행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당정책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사회주의농촌테제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로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농촌테제에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기본원칙과 과업,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습니다. 사회주의농촌테제는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이며 농업근로자동맹이 계속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입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 농촌에서의 사상혁명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 당의 충실한 농업전사로 키우기 위한 높은 단계의 사상교양사업, 인간개조사업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동맹원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기본임무로 틀어쥐고 여기에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농근맹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김정일애국주의, 투철한 혁명적신념과 높은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된 농촌혁명가, 애국농민으로 키워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을 당의 농업정책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이 당의 농업정책과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들을 정확히 알고 주체농법에 대해서도 잘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이 혁명적군인정신과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실천투쟁에 구현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영웅신화를 창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근맹원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생활과 공동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사회와 집단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와 집단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선군시대 농민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따라배워 동맹조직안에 서로 돕고 위해주는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 자본주의사상문화와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하며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농업근로자들의 준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농업로동은 계절에 따라 다른것만큼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그에 맞게 바쁜 농사철에는 포전에서 간결하고 기동성있게 하며 농한기에는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하여야 합니다. 농촌의 사상교양거점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안에 세워진 교양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며 학습강사, 강연강사, 해설강사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문 《농업근로자》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당정책과 현실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농업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여 내보냄으로써 그것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친근한 길동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치사업자료들을 시기별로 잘 만들어 아래단위들에 제때에 내려보내주며 그 리용에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방도입니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기술혁명을 농업발전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 힘을 넣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업발전을 위한 발명과 창의고안,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농업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에서 문화혁명을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농업지식과 과학기술을 소유한 새시대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문화회관과 농장농업과학기술보급실, 작업반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실속있게 운영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주인답게 농사와 관련한 과학기술지식과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촌에서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모범체육단위대렬을 늘이고 온 나라 농촌이 체육열기로 끓게 하여야 합니다. 군중문화예술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협동벌에 투쟁의 노래, 생활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농업근로자들이 혁명적열정에 넘쳐 락천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촌의 교육, 보건부문 농근맹원들은 우리 당의 교육정책과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후대교육사업과 의료봉사의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고 자기가 사는 마을과 살림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심고 마을주변의 산들에 푸른 숲이 설레이게 하여 농촌마을을 문명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2 면 으 로 계 속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1 면 에 서 계 속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습니다.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농업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하며 우리 나라를 알곡과 남새, 고기와 과일이 넘쳐나는 나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업생산장성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전담당책임제를 당의 의도에 맞게 실시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생산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조건이 아니라 농업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다수확우량품종들을 많이 육종하여 대대적으로 퍼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선진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능률적인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창안도입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해당 지방의 특성에 맞게 육종과 작물배치를 바로하고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농사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덕으로 흥하는 농장과 작업반, 분조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여 당의 과학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다발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땅과 농기계, 농기구들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땅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며 농기계와 농기구는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무기, 전투기술기재와 같습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장포전을 자기 집 터밭처럼 알뜰히 가꾸며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귀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논밭에 내며 산성화된 땅에는 소석회를 치고 흙깔이를 하며 록비작물을 많이 심어 땅을 기름지게 하여야 합니다. 농기계와 농업생산시설들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잘하며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중운동은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높이고 집단적혁신으로 농업생산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위력한 수단입니다. 농촌에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농근맹조직들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입니다.

농근맹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널리 조직진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농산부문에서는 도들사이, 다수확군들사이, 협동농장들사이에 정보당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본보기협동농장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축산부문에서는 생활력이 강하고 증체률이 높은 집짐승을 더 많이 육종하고 널리 퍼치며 고기와 알, 젖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과수부문에서는 과수업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맛좋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경쟁을 벌려야 합니다. 남새와 감자, 공예작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쟁도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대중운동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쟁판정사업을 공정하게 하고 총화와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하여 대중운동이 농업근로자들자신의 사업으로 되게 하며 대중운동과정에 얻은 좋은 경험을 서로 교환하고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과 당의 조국통일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진보적농민단체들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하며 반미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농민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대외활동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하며 세계 여러 나라 농민조직들과의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 련대성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조직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근로자동맹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동맹안에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사업체계, 본신임무수행을 첫자리에 놓고 사업을 설계하고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농근맹사업을 동맹규약상요구대로 진행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속에서 조직규률을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는 농근맹사업전반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작전하고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여 각급 동맹조직들을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근맹중앙위원회는 농근맹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아래에 대한 장악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도, 시, 군농근맹위원회들은 동맹조직들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내부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동맹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며 기층농근맹조직들에 내려가 도와주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초급단체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기층조직인 초급단체를 강화하는것은 전동맹을 강화하는 기초로, 출발점으로 됩니다. 각급 농근맹위원회들은 당의 의도대로 초급단체들을 실속있게 도와주어 모든 초급단체들을 전투력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서 모범초급단체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 대렬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전 동맹이 농근맹사업의 기본인 동맹원들과의 사업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핵심, 열성농근맹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혁명과업수행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며 모든 면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뒤떨어진 농근맹원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없으며 우리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양개조하지 못할 사람이란 없습니다. 자기의 전망문제나 생활상문제로 하여 속앓이를 하는 사람일수록 따뜻이 대해주며 자그마한 긍정의 싹이라도 조장발전시켜 그들을 선진분자, 적극분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조직은 농근맹원들의 정치생활거점이며 농근맹원들은 동맹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혈연의 뜻과 정으로 련결되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됩니다. 농근맹원들은 분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것만큼 그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농근맹조직들이 동맹생활지도를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하여 농근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농근맹원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동맹조직에 의지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며 조직의 결정과 분공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원들이 회의와 학습회를 비롯한 집체모임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고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농근맹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능력,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농근맹일군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농업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경제지식과 과학기술지식, 여러 분야의 상식을 소유하고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은 강습과 방식상학, 경험교환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농근맹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을 따라배워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포전에서 농근맹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와 상식들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은 군중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군중과 허물없이 휩쓸려야 하며 동맹원들속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에게서는 땅냄새가 나야 하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농근맹원들의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여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은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현상을 없애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이 농근맹조직들의 사업을 옳게 지도하며 잘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농근맹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대렬을 당에 충실하고 정치실무능력이 있으며 실천속에서 단련되고 군중성이 있는 사람들로 꾸려야 합니다. 농근맹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을 받드는 실천가형의 일군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농근맹원들가운데서 전망성있는 대상들을 농근맹일군후비로 장악하고 체계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당조직들에서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방침과 지시를 농근맹조직들에 제때에 알려주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장악지도하며 특히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의 자립성을 높여주어 농근맹조직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사업을 창발적으로, 주동적으로 배심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농근맹일군들에게 일감을 대담하게 맡기고 자기 힘으로 해나가도록 도와주며 그들의 사업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농근맹조직들에 사회적과제를 과중하게 주거나 농근맹일군들을 다른 사업에 망탕 동원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농업근로자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나는 농근맹조직들과 전체 농근맹원들이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타이왕국 왕세자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나는 씨리키트왕후폐하와 왕실가문의 이름으로 타이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각하께서 지휘들과 타이인민에게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께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주신것은 커다란 위안의 원천으로 되였으며 지휘들은 당신의 친절한 배려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타이왕국 왕세자
마하 바지라롱콘

2016년 11월 30일 방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로씨야에서 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1일 로씨아련방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씨아련방공산당 아무르주위원회 제1비서 엠. 아. 꼬비조브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 몽골 농업, 식료, 자연환경부문근로자동맹 위원장, 인도네시아운수로조련맹 중앙지도리사회 총서기, 로씨야련방 연해변강직업동맹련맹 위원장, 세네갈자치로동조합련맹 총서기, 슬로베니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프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경제계, 친선단체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립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지난 기간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농업근로자들의 힘찬 진군길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이란이슬람쿄련합당 부총비서, 이란로동자의 집, 몽골 농업, 식료, 자연환경부문근로자동맹 위원장, 수리아농민총동맹 위원장, 일반관계부장, 전인디아농업근로자동맹 총서기, 웰남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 로씨야농공업종합체근로자동맹 위원장, 로므니아근로자협회 서기장,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나이제리아 국회상원 농업 및 농촌개발위원회 위원장, 민주콩고로동계시민협회 전국위원장, 브라질근로자중앙 전국위원장, 농업 및 토지정책서기, 국제관계서기,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인 주체농법연구회 회장을 비롯하여 로씨야, 중국, 네팔, 레바논, 말레이시아, 만마, 몽골, 방글라데슈, 수리아, 캄보쟈, 파키스탄, 팔레스티나, 필리핀, 뻐르끼예, 인도네시아, 웰남, 도이췰란드, 벨가리아, 벨라루씨, 체스꼬, 쓰르비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딸리아, 에스빠냐, 르완다, 말리, 소말리아, 세네갈, 콩고,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 앙골라, 에질트,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빠나마, 빼루 등 세계 여러 나라 농민단체들과 정계, 사회계, 경제계, 주체사상연구조직, 친선단체의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이 지난 기간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이번 대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조선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함북도피해복구전선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고 온 나라가 총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으로 들끓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가 6일과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농근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농근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농업전선에서 통장혼을 부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밑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대회 이후 농근맹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며 당의 믿음직한 인전대, 외곽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창건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수령님들의 원대한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받들어나가는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충정이 슬기어있는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대지와 사회주의리상촌들이 형상되어있었으며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을 받들어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 《일심단결》, 《결사옹위》라는 구호들과 글발들이 나붙어있었으며 농근맹기발들이 드리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급 농근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현관부문의 당, 행정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농근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모범적인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김정은장군찬가》 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며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4.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서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가 전달하였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농업근로자동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밝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당들과 농업근로자조직들, 사회단체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여온데 대하여 소개되였다.

첫째 의정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총진군길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가 이룩되고 총정의 200일전투의 승전고가 자랑차게 울리고있는 시기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전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을 농업근로자동맹의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신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근맹이 광범한 농업근로자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건설사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근맹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탁월한 령도의 력사로 빛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1(1972)년 2월 16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동맹의 중심과업, 투쟁강령으로 제시하시였으며 농근맹조직을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1985년 12월 1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농업근로자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농업근로자동맹의 성격과 임무를 새롭게 밝혀주시고 동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맹안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사업체계와 규률을 엄격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우리 혁명앞에 준엄한 난국이 가로놓인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동맹이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도록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여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동맹이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정치조직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시였다.

2012년 7월 조선농업근로자동맹대표자회를 마련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을 동맹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였다.

보고자는 농업근로자동맹이 모든 농근맹조직들을 당의 령도밑에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수령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농근맹일군들과 동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며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다 바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본보기, 진형단위로 꾸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동맹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틀어쥐고나갔다.

농근맹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당중앙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며 당의 방침과 지시를 즉시에 접수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즉시에 집행하는 혁명적사업체계와 규률을 엄격히 세우도록 하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사상도 뜻도 운명도 함께 해온 여기에 동맹사업의 주되는 총화가 있으며 수령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농업근로자동맹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근로자동맹이 우리 당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사회주의농촌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는 전 로정에서 동맹이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자기 임무를 다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농근맹조직들에서 사상교양사업을 중심, 핵으로 틀어쥐고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을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동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사상중시로선을 틀어쥐고 학습과 강연, 해설강의를 비롯한 교양망체계를 통하여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였으며 자기 령도자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숭고한 김정일애국주의, 혁명적신념과 투철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키였다.

농근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 농업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비롯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면서 당의 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농업근로자동맹이 앞장서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내세워주시고 알곡과 축산, 과수, 온실남새를 비롯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에서 농근맹조직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농근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이 제시한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들끓는 포전현장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으며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불러일으키는 경제선동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과 수십만정보의 간석지개간, 새땅찾기와 관개공사 등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나라의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속에서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룡천군 신압협동농장,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들이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의 본보기로 되였으며 수많은 농장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면모를 일신하였다.

대홍단군, 삼지연군, 백암군과 대동강, 고산과수종합농장을 비롯한 감자, 과일생산단위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뜻깊은 올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에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수많은 농장들이 말겨진 알곡생산과제를 수행하였다.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시키기 위한 토지정리와 자연흐름식물길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여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는데 이바지하였다.

당의 기술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농업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우리 식의 새로운 농기구와 농기계들이 창안도입되였다.

농근맹조직들은 우리 당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속에서 인민군대의 선군문화와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선군청년문화를 따라배워 온 나라 농촌에 혁명적랑만과 기백이 차넘치게 하였으며 농촌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나갔다.

4 면으로 계속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다

3 면 에 서 계 속

군중문화예술활동을 적극 벌려 협동벌마다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퍼지도록 하였으며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선군생활문화모범가정을 창조하고 농촌마을을 과일향기가 넘치는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에 선군문화가 꽃펴나도록 하였다.

농업근로자동맹은 농근맹조직들을 사회주의농촌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선군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였다.

농근맹조직들은 《전 동맹이 초급단체를 도와주자!》는 구호밑에 동맹원들속에서 조직관념을 높이고 모든 초급단체가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준비해나가도록 하였다.

당의 령도업적단위들을 기본으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 과정에 동맹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농근맹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전환이 일어나 수많은 초급위원회, 부문위원회, 초급단체들이 모범단위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보고자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천리혜안의 예지, 탁월한 령도로 농업근로자동맹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동맹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당의 믿음직한 옹호자, 방조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농업근로자동맹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적농민운동의 개척자이시며 농업근로자동맹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으며 동맹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근로자동맹과 농업근로자들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강령을 받들고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보고자는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농업근로자동맹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차적으로 틀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농근맹조직들과 농근맹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농근맹조직들은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중대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받드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도,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도 있다는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백두의 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계속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절세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농업근로자동맹과 전체 농업근로자들, 농근맹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불타는 열망으로 농업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남조선농민단체들과의 련대련합을 강화하여 반미자주화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힘있게 지지성원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당의 대외정책리념과 원칙을 일관하게 구현하며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다른 나라 농민조직들, 단체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세계자주화위업을 다그쳐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평안남도농근맹조직대표 리태정, 정옥숙, 송영옥, 강원도농근맹조직대표 정금숙, 평안북도농근맹조직대표 백상혁, 최광남, 남포시농근맹조직대표 리순녀, 평양시농근맹조직대표 김정혁, 주길섭, 황해북도농근맹조직대표 김화숙, 박일, 하대영, 황해남도농근맹조직대표 배창현, 림춘희, 김창숙, 심순녀, 함경남도농근맹조직대표 백운룡, 조성철, 김영춘, 함경북도농근맹조직대표 손용철, 자강도농근맹조직대표 안송후, 량강도농근맹조직대표 리선판, 라선시농근맹조직대표 박동필 등이 하였다.

자강도농근맹조직대표 길상봉, 장창수, 평양시농근맹조직대표 김춘일, 강영호, 남포시농근맹조직대표 리원일, 함경북도농근맹조직대표 최한, 함경남도농근맹조직대표 리정희, 평안북도농근맹조직대표 최은순, 최영준, 강원도농근맹조직대표 최필영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200일전투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리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영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동맹이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폭풍우속에서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서의 위력을 떨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온 자랑찬 행로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업근로자동맹안에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정이 백박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과 질서가 세워짐으로써 동맹은 경애하는 원수님과 혈맥을 잇고 하나의 심장으로 고동치는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신념의 강자로 키우는데 사상사업의 총력을 집중하여 그들모두를 쌀로써 당을 굳건히 받들어나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위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킨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의 농근맹원들이 생사를 관가리하는 위급한 정황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와 영상작품, 당의 기본구호들을 안전하게 모심으로써 횡포한 자연의 광란도 우리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당에 대한 믿음, 당중앙결사옹위의 혁명적신념만은 꺾지 못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로전길을 걷고걸으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의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해설강사들이 만리마시대 사상전선의 나팔수로서의 본분을 명심하고 천리마시대 선동원들처럼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과 당정책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시킴으로써 알곡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농근맹원들을 혁명적군인정신과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제국주의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튼튼히 다지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생산적앙양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전공적으로 내밀어 알곡과 온실남새생산목표를 돌파하였으며 백두대지에서 감자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뜻깊은 올해에 《철령아래 사과바다》에서 최고수확고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농장들이 농가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어 과일향기가 넘쳐나고 염소메, 양메가 우실거리는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된데 대하여 말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받들고 버섯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잘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여 농업근로자들을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킨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농촌들에 혁명적랑만이 차넘치고 고향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고 강조하였다.

농촌기계화초병들이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26호모범기대창조운동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당의 의도에 맞게 벌려나감으로써 농촌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를 짜고들어 모든 초급단체들이 생기발랄한 전투조직으로 강화되였으며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는 애국농민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군사중시로선을 받들고 농근맹조직들과 농근맹원들속에서 인민군대원호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였으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높이 받들고 전 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동맹의 총적목표, 총적투쟁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사회주의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토론들이 진행되는 동안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등의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신창성 농근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농업근로자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먼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다음으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농근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후보자들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농근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대회에서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발표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리명길, 부위원장으로 한경송, 려혜정, 길상봉, 오기백이 선거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또한 농근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농근맹중앙위원회 기관지 《농업근로자》 주필이 임명되였다.

대회에서는 농근맹중앙검사위원회 제8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진행된 농근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선거결과가 발표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농근맹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실현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전체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농근맹일군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우리 녀자축구선수단 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는 환영연회 진행

【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서는 국제축구련맹 2016년 20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우리 녀자축구선수단 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여 7일 옥류관에서 환영연회를 마련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룡남내각부총리, 김일국체육상, 김장산 축구련맹 제1부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선수, 감독들과 가족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당과 조국,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할 불타는 일념으로 모든 경기마다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체육인의 본때와 조국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녀자축구선수들과 감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체육전사로 자라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올해에 두차례의 녀자월드컵경기대회들에서 우승한 자랑찬 승리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한 기세로 충정의 200일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있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수, 감독들이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을 심장속에 새겨안고 달려도 세계의 땅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황영봉책임감독, 최설경선수가 답사를 하였다.

그들은 어머니당의 사랑에 떠받들려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아안은데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여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은것은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평시에 훈련을 강화하였기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앞으로도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국제경기들에서 새로운 체육신화를 련이어 창조하며 세계패권을 계속 틀어쥘 결의를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경축

농업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 진행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경축 농업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가 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들, 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무도회를 관람하였다.

《풍년가》의 흥겨운 농악이 울리는 가운데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신포시 신풍협동농장, 창도군 장현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등의 농업근로자들이 입장하였다.

설화 《세세년년 농악소리 풍년벌에 울려가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농민들을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 행복의 농악소리 높이 울려주신 절세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관람자들의 열글마다에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대중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려있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춤가락이 흘러넘치는 농악무 《분조농사 꽃이 피네》와 《원수님 사랑속에 흥하는 장천》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전환이 일어나고 농촌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고 있는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수령님 은덕일세》, 《흥하는 내 나라》, 《대홍단 삼천리》 등의 음악선률에 맞추어 열두발상모를 돌리며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상모군들과 협동벌이 들썩하게 농악무를 펼치며 우아한 민속무용의 춤가락들을 익혀온 농업근로자들의 희열과 랑만으로 장내는 끝없이 설레이였다.

관람자들은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시어 농민문제, 농업문제해결의 휘황한 진로를 밝혀주시였으며 현지지도의 길에서 평범한 농업근로자들이 출연하는 봉산탈춤도 친히 보아주시고 농악무에 나오는 열두발상모의 길이까지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속에 꽃펴난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전변의 새력사를 감회깊이 되새기였다.

민족의 정서와 함취가 한껏 차넘치는 무도회장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력으로 흥하는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자랑찬 모습이 펼쳐지고 《철령아래 사과바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를 비롯한 흥겨운 농악이 울려퍼져 분위기는 더 한층 고조되였다.

출연자들은 농근맹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 발걸음을 같이해나가는 위력한 혁명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쌀로써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혁명적열정을 안고 경쾌한 춤률동을 련이어 펼쳐놓았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시고 정을 기울여 가꿔주신 사회주의대지우에 세세년년 펼쳐질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합창으로 끝난 농악무도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당의 사회주의농촌구상을 실현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장군님의 그 은덕 인민은 천만년 전해가리

끝없이 울려가는 인민사랑의 노래

하나음악정보쎈터에서

하나음악정보쎈터!

조용히 불러만 봐도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이 뭉클 젖어든다. 다섯해전 12월 우리 장군님 찬바람부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찾으시여 인민사랑의 위대한 자욱을 새겨가시였다고 생각하니 옮기는 걸음조차 뜨거운 격정으로 서슴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훌륭한 명곡들을 더 많이 들려주게 된 기쁨이 그리도 크시여 자신께서 수십년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절절히 하시던 장군님의 말씀이 금시라도 들려올듯싶다.

어느 길인가. 쎈터를 현대미가 나게 훌륭히 건설했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신 그 길은.

몸소 음악을 감상해보시며 극장에 앉아 음악을 직접 듣는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잘 꾸렸다고 치하해주신 그 자리는 또 어디…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장군님의 거룩하신 자욱자욱을 더듬어보는 우리들이다.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면 열, 백가지를 더 주고싶어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 종합적인 음악정보봉사기지로 일떠선 하나음악정보쎈터.

지금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의 문명한 정서생활이 한껏 꽃펴나고있다. 음악무용전문가들과 비전문가들의 대상별특성에 맞게 편리하게 구획을 지어 꾸려진 음악전자도서관과 현대적인 립체음향설비를 갖춘 다통로감상실…

음악전자도서관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음성 및 동화상자료들, 도서, 악보를 마음껏 시청열람할수 있다. 2011년 12월 이곳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콤퓨터에 앉아 시청열람을 하던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곳에 올 때마다 우리 장군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좋은 곡들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군 합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과 5대혁명가극, 새로 나온 노래를 비롯한 음악작품들과 음악CD, 악보, 무용작품, 무용보, 토막상식, 일화…

음악과 무용 등의 어느것이든 구체적인 자료들을 다 시청열람할수 있어 누구나 좋아한다.

다통로감상실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즐겁다. 세개의 전면고성기와 두개의 후면고성기를 갖춘 5.1체계의 다통로감상실에서는 서로 다른 정황의 여러가지 색채의 음향을 실감있는 분위기속에서 감상할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금성정치대학의 한 학생은 말했다.

《이곳에서 마음껏 음악감상을 하느라니 이런 훌륭한 음악정보봉사기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젖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이곳에 자주 와서 문화적소양도 높이고 정서생활도 더 활짝 꽃피워 꼭 훌륭한 인재로 준비해나가겠다고 결의다졌다.

극장에서 관람하는것 같은 인상을 주는 다통로감상실은 전문가들은 물론 아이들도 앞을 다투어 찾아오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새로 나온 노래며 편집물, 만화영화 등 기호와 취미, 문화수준에 따르는 다양한 봉사를 받게 된다.

다통로감상실을 나서면 작은 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앉아 토론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한때에 한번씩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문가들의 강습도 이곳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그뿐이랴. 이곳에는 부피두툼한 감상록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의 문명한 생활을 위해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로고를 되새기며 격정을 터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의 뜨거움에 젖은 목소리들이 적혀있다.

다섯해전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통로감상실과 이 홀에도 들리시여 우리 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음악정보봉사기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발자취를 따라 쎈터의 곳곳을 돌아볼수록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심장을 불태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을 친다.

오늘도 하나음악정보쎈터를 찾는 사람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이 가득 차넘치는 이곳에 선뜻 들어서지 못한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그날의 음성이 금시라도 들려올것만 같아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하나음악정보쎈터의 곳곳에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스며있는듯싶고 들려오는 노래의 구절마다에도 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실려오는데야.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 합치면 인민뿐이네라는 《인민사랑의 노래》가, 이 땅우에 좋은 선물, 훌륭한 곡들이 더 많이 흘러넘치게 하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불철주야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속에 수많이 태어난 시대의 명곡들이.

그 선률을 타고 보란봉악단이며 청봉악단 등 희한한 예술단체들이 안겨오고 진격의 나팔수되여 시대를 선도해가는 수많은 예술인재들의 모습도 자랑스럽게 비쳐온다.

하거늘 사람들이여, 인민을 위한 희한한 예술보급기지, 예술보급의 전당인 하나음악정보쎈터를 찾을 때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다심한 사랑과 은정이 얼마나 열렬한것이였는가를 잊지 말자.

우리의 즐거운 생활, 행복한 웃음, 이것을 위해 우리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께서 걷고 또 걸으신 인민사랑의 그 길을 영원히 가슴속에 새기자.

글 본사기자 오은별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와 오늘의 행복

마지막문건과 사회주의바다향기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 우리네 바다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어로신화가 창조되였다.

어장마다 펼쳐진 물고기폭포, 초소와 일터, 집집에 넘치는 사회주의바다향기는 어디서 시작된것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수산부문을 중시하는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관심하신 문제가 바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이는 문제였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수산부문을 추켜세우는 문제와는 끝장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람세찬 바다길과 양어장의 구내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전례없는 수산열풍을 일으켜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문건으로 남기신 수도시민들에 대한 물고기공급안이 간직되여있었다.

사회주의바다향기, 정녕 그것은 오늘도 이어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사랑의 축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병사사랑, 인민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멸사복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인 사회주의바다향기는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와 더불어 장군님사랑, 원수님사랑을 길이길이 전하며 우리 조국강산에 더 가득히 차고넘칠것이다.

귀중한 유산—강서약수

우리 나라의 손꼽히는 광천자원인 강서약수는 수백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이 귀중한 민족의 재보가 영영 사라질번 한 일이 2011년 봄에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의 후과로 쉬임없이 솟구치던 강서약수줄기가 흐름을 뚝 멈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귀중한 보물을 잃어버린데 대해 가슴아픔을 금치 못했다. 사라진 샘줄기를 찾기 위해 강서약수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고심어린 투쟁을 벌렸으나 샘은 의연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있던 샘줄기에서 약수가 나오지 않을때에는 대담하게 비지향CT탐사를 하여보고 다른 곳에 추공을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이 은정어린 조치로 원래보다 용출량도 많고 질도 더 높은 새로운 강서약수가 뿜어져나오게 되였다.

오늘도 약수마을사람들은 강서약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천길땅속도 한눈에 꿰뚫어보시고 자연의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다시 솟구친 또 하나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다.

사과맛경쟁바람

수많은 과일매대들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맛있고 신선한 사과를 골라들며 대동강사과며 철령아래 과수바다의 사과를 찾는다. 룡전과 덕성의 사과들이 없는가고 묻는 사람도 있다. 수도와 지방의 크고작은 과수기지들에서 무르익은 열매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이 광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를 되새겨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5월 룡전과수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한하게 일떠선 과수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경쟁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 말씀은 농장일군들을 놀래웠다. 면적상으로도 이 농장의 몇배나 되고 생산량 또한 그에 못지 않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경쟁을 한다는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였던것이다.

이들의 심중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룡전과수농장에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과수밭면적을 늘이기 위한 경쟁을 할것이 아니라 맛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사과맛경쟁!

우리 장군님께서 남기신 이 경쟁바람은 오늘도 과수부문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인민의 행복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열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선경마을에 꽃피는 자랑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에서

우중충한 산발이 병풍처럼 둘러막힌 골안에 즐비하게 일떠선 아담한 건물들, 풀판마다 구름처럼 흐르는 염소와 소떼들, 총총이 들어앉은 네모반듯한 양어장들…

이것이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의 전경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이 수많이 일떠서고 거리와 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습니다.》

한폭의 그림마냥 아름답게 펼쳐진 축산기지에서 우리와 만난 분장일군인 김봉길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축산분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뜻깊은 곳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외진 고장의 축산분장을 찾아주신 그날은 14년전 7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한여름의 찌는듯 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분장의 전망대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기슭마다에 무리지어 흐르는 염소와 소떼들, 즐비하게 늘어선 축사들과 가공건물들, 푸른 숲속에 아담하게 일떠선 문화주택들을 바라보시며 농장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한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축산기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도도 가르쳐주시고 걸린 문제들도 몸소 풀어주시였다고 이야기하는 김봉길동무의 목소리는 저으기 젖어있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따라 걸음을 옮기였다.

한걸음 또 한걸음 걸음수록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윤택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가 되새겨져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끼분조장 조종연동무의 집에도 들리시여 그들부부의 사업과 생활, 자녀들의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정히 물어주시고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몸소 부엌에 도입한 메탄가스화정형도 알아보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아담한 문화주택에도 들려보았다.

부엌에 설치한 메탄가스시설들과 파란 불길이 타오르는 가스곤로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면서 새로 지은 문화주택에서 가스로 밥을 해먹으니 얼마나 문화적인가고, 조종연동무의 집에서처럼 한다면 모든 집들에서 메탄가스를 손쉽게 생산할수 있다고,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영광의 일터와 마을을 더욱 빛내이기 위해 대를 이어 힘껏 일해나가겠습니다.》

조종연, 허춘금부부의 맏딸인 청년분조장 조선희동무의 열정적인 목소리였다.

그런 불같은 열망을 안은 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기간 실로 수많은 일을 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오는 나날에 농장안의 모든 세대들마다에 실현한 메탄가스화, 축산물과 여러가지 젖가공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

그뿐이 아니였다.

주변산들은 물론 집집의 뜨락마다에 무성한 갖가지 과일나무들과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길러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는 양어장들, 그 질과 맛이 다른 고장에도 소문이 나 날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여러가지 젖가공품들에 대한 자랑이야기속에서도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마을과 일터를 더욱 훌륭히 가꾸고 빛내여가려는 이 고장 사람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가슴후덥게 느낄수 있었다.

진정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그 업적을 심장에 안고 사는 인민의 지향은 그 얼마나 순결하고 강렬한것인가. 그 열렬한 지향과 충정을 지닌 마음과 마음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무수히 새겨져있는 이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하마냥 줄기차게 굽이쳐흐르고있기에 내 조국강산은 더욱 빛나고 영원히 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장정철

영원한 축복

국립연극단 배우 최금향동무의 가정을 찾아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예술인아빠트에 국립연극단 명배우들이 살고있다.

얼마전 그 아빠트층계를 오르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집이라는 글이 씌여진 현판이 붙은 3층 3호의 출입문에서 《최금향》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였다.

자기 이름보다 김일성상계관작품인 연극 《산울림》에 나오는 금단이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젊은 녀배우.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때로부터 오늘까지 6년세월 그의 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가 하는 호기심이 우리를 끌어당겼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초인종소리에 문을 연것은 최금향동무의 어머니 공금숙녀성이였다. 사연을 안 최금향동무와 그의 남편 조경일동무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을 따라 손님방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한눈에 안겨왔다.

최금향동무와 조경일동무는 결혼한지 나흘만에 그리고 새 집에 이사온지 불과 이틀만에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가정에 모시는 꿈같은 영광을 지니였다. 그때 그들은 새집들이를 축하하러 오신 친아버지를 맞는 심정이였다.

그들부부는 다 일찌기 아버지들을 잃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갓 살림을 편 그들부부에게 누구나 부러워할 희한한 살림집을 안겨주시고 새집들이까지 몸소 축하하시려 찾아오신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정의 눈물을 쏟는 그들을 달래시며 친히 마련해가지고오신 기념품들을 안겨주시였다.

《바로 이것이 장군님께서 그날에 안고 오신 여러종의 집기류들과 성냥, 가루비누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입니다.》

최금향동무가 손님방에 소중히 간수한 은정어린 기념품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우리의 눈길이 6년전의 그날 그대로 빼곡이 차있는, 단 한가치도 불길을 일군적 없는 새 성냥에 가서 못박혔다. 아마도 이 가정의 자자손손에 이르도록 그대로 있을지도 모를 그 성냥, 하지만 그것은 매일, 매 시각 이들 가족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집을 찾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우리모두의 친근한 어버이이시고 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불길, 그이를 영원히 어버이로 높이 모셔갈 맹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나어린 총각애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신통히도 엄마를 닮은 그애의 이름은 조현웅, 나이는 5살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이듬해에 현웅이가 태여났다. 그때 최금향, 조경일부부는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께 꼭 편지를 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교시를 생각하고 친어버이께 집안의 기쁨을 아뢰이는 심정으로 한자두자 편지를 써나갔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편지를 받아보신 바로 얼마후 민족대국상의 비보가 전해졌다.

조경일동무는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철주야 로고를 바쳐가시는데 제 한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하고있었으니 우린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피눈물의 그날 온 나라 인민이 어버이장군님의 로고를 뼈아프게 절감하며 이제라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자고 떨쳐일어날 때 복받은 이 가정의 젊은 부부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갈 새 결의를 다시금 가다듬었다.

벽에 나란히 걸린 대회참가증들이 그들이 걸어온 빛나는 자욱을 말해주는듯싶었다.

연극 《리순신장군》과 현재 성황리에 공연되고있는 연극 《혈매》의 주역을 맡아한 최금향동무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락랑구역검찰소 일군인 조경일동무는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유치원에 다니는 현웅이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린 어머니처럼 나라의 예술인재가 될 고운 꿈을 무럭무럭 자래우고있다.

한가정의 꽃피는 행복과 나래치는 희망, 그것은 위대한 어버이의 영원한 축복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꽃피워가는 이 나라 가정들의 아름다운 축도였다.

본사기자 허명숙

전국전자자동화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전자자동화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6일과 7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기계종합대학, 희천공업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발표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전을 벌리고있는 전자자동화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할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자동조종공학분과, 자동조종체계분과, 정보측정공학분과, 전자공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120여건의 론문들이 소개되였다.

발전소수위, 류량측정체계설계, 집짐승자동식별동적계량과 사양관리정보화체계, 대기환경측정체계의 수감부구동방식을 비롯한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발표회에서는 최근 로바스트조종기술, 체신현대조종공학의 발전과 세계적추세 등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우수한 론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2016년 마카오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중국 마카오에서 진행된 2016년 마카오국제마라손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7일 귀국하였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우크라이나, 케니아, 에티오피아 등 15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40여명의 선수들, 1만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일념밑에 녀자마라손경기에 출전한 우리 나라의 김지향선수는 완강한 의지와 인내력,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시간 36분 16초로 결승선에 제일먼저 들어섰다.

시상식에서는 영예의 1위를 쟁취한 김지향선수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되였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 감독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김지향선수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재중동포와 중국박사원생에게 언어학박사학위 수여

재중동포와 중국박사원생에게 언어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임철웅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중국류학생들과 연구생, 실습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들이 전달된 다음 평양문화어 억양흐름의 구조적특성을 과학화하고 외국인들의 조선어습득에서 나타나는 오용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적방도를 밝히는데 이바지한 중국 연변대학 교원 장성일과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 우소에게 언어학박사학위가 각각 수여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량심으로 걷는 길

상업성체육단 연구사 김성희동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제31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는 상업성체육단 연구사 김성희동무가 내놓은 《우리 식의 반사료법에 의한 대중건강관리방법》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성희동무와 그의 딸 리수향동무가 공동연구한 대중건강관리방법은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을뿐만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진단, 약물에 의한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25년간 누가 알아주건말건 우리 식의 반사료법연구에 한생을 바쳐온 상업성체육단 연구사 김성희동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걸어온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안아보게 된다.

의학자가정에서 태여난 김성희동무에게 있어서 반사료법에 대한 연구는 그가 스스로 정한 량심의 길이였다.

그가 반사료법에 흥미를 가지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이였다.

의료일군이였던 어머니가 자체로 발바닥을 자극하여 앓고있던 난치의 병을 치료하는것을 보았을 때 김성희동무는 반사치료의 특이한 효과와 그 우월성에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반사료법과 관련한 도서들을 통하여 그는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킬 결심을 굳히게 되였다. 김성희동무는 그것이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과 조국을 위해 기어이 해야 할 한생의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남다른 꿈과 희망을 꽃피워준것은 어머니당과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이였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의학대학에서도 공부하면서 2개의 학문을 전공하였으며 새로운 과학탐구의 길에 들어섰다.

어느 한 병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던 그의 딸도 평양콤퓨터기술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이때부터 김성희동무는 반사료법에 대한 연구에 한생을 바쳐오게 되였다. 당이 바라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 결사의 각오와 그 길에서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은 그가 시련과 난관을 꿋꿋이 이겨낼수 있게 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솟아난 인민대학습당을 찾았을 때 그의 가슴은 또 얼마나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 마련된 은정어린 도서들을 소중히 품어안는 그의 가슴은 많은 연구사업을 하루빨리 완성할 굳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 나날 그는 여러해동안 수도를 떠나 북방의 두메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을 편답하였으며 하나의 자료를 놓고 며칠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고심어린 노력과 지칠줄 모르는 탐구로 그는 조선사람의 체질과 지역과 직업,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 식의 반사료법을 연구하여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우리 식의 반사료법에 의한 대중건강관리방법을 도입한 결과 상업성체육단에서는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과정에 생기는 스트레스를 제때에 해소하는데서 효과를 보고있으며 선수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이룩한 경기성과들을 공고히 하고있다. 또한 편의봉사망들에서의 대중봉사와 자체건강관리에 리용되여 그 효과성과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최근년간에도 김성희동무는 대중봉사에 우리 식의 반사료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전습에 여러차례 출연하고 봉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지도들을 주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많은 의료일군들이 그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다.

그는 오늘도 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당당히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배심과 불타는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우리 식 반사료법연구에 자신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안고

지난 3일 평양산원 9산과의 의료일군들의 지극한 정성과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생명이 경각에 이르렀던 력포구역 장진2동에서 살고있는 김련녀성이 쌍둥이어머니가 되여 만사람의 축복속에 산원정문을 나섰다. 며칠전에 여러가지 질병까지 겹쳐 심한 호흡부전과 함께 운신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에서 산원으로 실려왔던 그였다.

급속히 악화되는 호흡상태와 합병증에 의한 심한 고열, 혼미해지는 의식… 순조롭게 해산을 할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했다. 그러나 김명희, 류란동무를 비롯한 9산과의 의료일군들은 환자를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수차에 걸치는 협의회가 진행되고 구급치료조가 조직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치료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드디여 쌍둥이가 터치는 고고성이 평양산원의 창가에 메아리쳐울렸다.

자기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진정을 기울여준 의사, 간호원들의 그 사랑과 정성은 김련녀성으로 하여금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실지체험으로 새겨안게 했다.

참으로 의사, 간호원들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정성이 김련동무의 심장의 박동이 되고 의지가 되여주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기의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쳐가는 9산과 과장 리금철동무와 김장애, 최경화동무를 비롯한 산원의료일군들의 사랑과 정성을 전하는 이야기들중의 하나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이런 의료일군들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더욱 빛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분노한 남녘민심의 초불은 더욱 세차게 타올라 사대매국의 아성을 불태워버릴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초불은 여의도까지 불태울것이다

남조선언론들 초불민심을 대변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5일 《사상 최대 230만초불의 준엄한 요구는 탄핵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3일 초불집회에 수백만명이라는 력사상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였다고 하면서 지난 10월 29일 수만명으로 시작한 초불집회가 1987년 6월항쟁을 뛰여넘는 규모로 커졌고 갈수록 더 거세차게 전개되고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치권을 질타하는 시민들의 초불집회를 전세계가 지켜보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집회가 사상 최대규모로 커진것은 사회적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초불을 끌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초불집회의 성과는 이미 현실화되였으며 초불은 무능한 정치권을 대신하여 정치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런 시민의식이라면 탄핵후 무질서를 걱정하는것은 쓸데없는 공연한짓이다. 《국정》공백이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도 충분히 넘을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난다. 임기단축이라는 꼼수로 공을 《국회》에 떠넘기고 대구 서문시장방문을 통해 정치적복귀를 꾀한데 대한 응징이다.

파수를 반성하지 않는 최고권력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침없이 내보였다.

보수대오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즉각 해체를 요구하였다.

시민들의 뜻은 《대통령》을 한시도 더이상 그 자리에 두고 볼수 없다는것이다.

신문 《한겨레》는 이날 《230만초불의 웨침은 탄핵가결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지난 주말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전지역을 밝게 수놓은 사상 최대규모의 초불이 박근혜탄핵을 웨쳤다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이 《해넌 4월 퇴진》이니, 《질서있는 퇴진》이니 하며 《대통령》의 즉시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우롱하였기때문에 민중이 떨쳐일어났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이번 6차 초불집회는 참가자수만 늘어난것이 아니라 핵심구호인 《박근혜하야》에서 《즉각 퇴진》으로 바뀌고 《새누리당 해체하라》가 광범한 대중의 투쟁구호로 되였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새누리당》사에 걸린 천수막이 시민들이 던진 달걀로 얼룩졌고 여당을 상징하는 기발이 갈기갈기 찢어졌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것은 민중의 분노가 청와대뿐아니라 탄핵을 주저하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려는 《새누리당》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심을 이길수 있는것은 없다. 230만초불의 웨침은 단 하나 탄핵안가결이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도 이날 《탄핵의 문을 활짝 연 230만초불민심》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초불집회가 지난 주말 또다시 기록을 경신한데 대해 언급하고 지난 5차 초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을 보여주었지만 정신 못 차린 《대통령》과 《새누리당》, 흔들리는 야당에 분노한 민심이 다시 폭발한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로 선포된 6차 초불집회에 수백만명이 호응하여 거리로 나온것은 《질서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은 용납될수 없음을 보여준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박근혜스스로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려놓고 《질서있는 퇴진》을 운운하는데 동의할 민중이 없고 최순실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며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방도는 없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 《6월 대통령선거》라는 당론결정을 즉각 폐기하고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권》을 출현시킨 후 부귀영화를 누린 공범자들이다. 230만초불에 놀란 《새누리당》비박계가 《9일 탄핵찬성》을 표방하였지만 신뢰할수 없다. 탄핵이 부결되는 순간 청와대와 함께 《새누리당》지지률도 4%로 주저앉을것임을 알아야 한다.

야당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4. 19혁명, 6월항쟁을 뛰여넘는 대규모초불집회가 펼쳐지는데서 야당이 한 일이라고는 집회장한구석을 차지한것밖에 없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눈치나 보는 정치인들에게 매를 판응은 없다.

민중만 보며 가라, 민심만 받들라, 이것이 230만초불이 보여준 민심이다.

이번주에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초불은 광화문뿐아니라 여의도까지 불태울것이다.

재벌집단과 《새누리당》 압박, 강도높은 비상국민행동 결의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피뢰역도년의 부정추문행위의 공범자인 재벌집단을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5일 단체성원들은 《전국경제인련합회》(전경련)의 건물안으로 들어가 시위투쟁을 벌리며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련루된 재벌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웨쳤다.

그들은 재벌들의 죄물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경련》을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하였다.

다음날 단체는 다시 《전경련》앞에 모여 박근혜의 즉시퇴진과 재벌우두머리들의 구속, 《전경련》해체를 주장하는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단체는 산하로조들이 7일 전지역적규모에서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즉각 퇴진!》의 구호를 들고 《새누리당》규탄집회를 가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여야정치권이 박근혜를 퇴진시키도록 압박하기 위해 7일부터 《국회》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비상국민행동을 강도높이 벌려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심판을 위한 초불시위행진 전개

남조선신문 《로동과 세계》에 의하면 6일 보건의료로조 경희의료원지부 소속 로동자들이 박근혜퇴진, 로동악법폐기, 의료민영화중단을 요구하는 초불시위행진을 하였다.

경희대학교의 민주동문회, 총학생회 성원들과 교수대표 그리고 민주로총 동부지부협의회 등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경희의료원앞에서 출발한 시위자들은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롱락행위와 함께 개인의 리익을 추구하고 재벌들의 배를 불리여준 현 《정권》의 정책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하였다.

박근혜《정권》은 민중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로동자들의 힘으로 박근혜퇴진을 이루어내자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초불광장을 확대시키자고 말하였다.

박근혜가 계속 술책을 꾸미고 있는데 대처하여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심사과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회기역에 이른 시위자들은 그 자리에서 박근혜역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역도년을 구속시키는 의식을 진행한 다음 박근혜퇴진, 로동악법폐기, 의료민영화중단을 위해 로동자총파업투쟁에 합세할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30여만초불의 웨침—박근혜 즉각 퇴진

파멸을 재촉하는 《독자제재》소동

얼마전 남조선괴뢰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불법무법의 대조선《제재결의》조작이후 남먼저 《독자제재안》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재결의》로 그 누구의 《승통을 조일수 있게 되였다.》고 환성을 올리며 그 리행을 《앞장에서 견인》하겠다고 서둘러 벌려놓은 놀음이다. 산송장이 된 청와대의 마귀할미의 주둥이노릇을 하고있는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은 저들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그 누구의 《도발행위》를 저지하겠다고 흰소리를 쳤다. 비상히 높아진 우리의 전략적지위에 기접한 괴뢰패당은 보는바와 같이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초강도제재》를 목터지게 웨쳐대고있다.

가란은 이미전에 북남사이의 그 어떤 인적, 물적래왕도 모두 차단시킨 괴뢰들이 《금융제재명단확대》, 《북측인사의 출입국제한》, 《북남간의 물품반출입통제강화》 등 저들의 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실행할수 없는 잠다한것들을 이것저것 뭉그려내고는 유엔의 《제재결의》보다 북에 《더 아플수 있다.》느니, 《강력한 신호효과》니 하고 동네바보들같이 어깨를 돋구는 꼴이다. 저들내부에서조차 《아무리 짜내보아도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 《마른 수건을 짜는 수준》이라고 개탄하는 이따위 뒤간 휴지장보다 못한 문서를 만들어내고는 큰일이나 천둥이 피충을 추어올리는 그 물물에 실로 가소로움을 금할수 없다.

역적패당의 망동은 밑동잘린 썩은 고목신세가 되여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속에서도 북남관계에 대못을 박고 우리에게 앙갚음을 해보려는 대결미치광이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배앓는 관가돼지처럼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련한 신세가 된 주제에 동족을 모해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싸매고 나서는 그 추악한 망동에 판뚜껑을 덮을 때까지 탈려질수 없는 괴뢰들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비국은 한갖 버려지만도 못한 역적패당이 그 무슨 《독자제재》따위의 쓸데없는 허바닥놀음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정의의 길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오산하면서 스스로 파멸의 무덤에 뛰여들고있는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라. 괴뢰들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공조놀음을 벌려놓았지만 언제 한번 빛을 본적이 있었는가. 더우기 오늘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올라서고 무한대한 우주공간을 배심있게 정복해나가는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에 괴뢰들이 우려먹던 그따위 제재묵은 수법이 과연 통할상싶은가.

우리에게는 적대세력들의 《독자제재》든, 집단제재든, 추가제재든 가차없이 짓부셔버릴 충분한 힘이 있다.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는 자력자강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필승불패의 힘을 지닌 우리 천만군민은 승리의 진로를 따라 도도히 질풍노도쳐 나가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적대세력의 그 어떤 경제제재와 봉쇄책동도 우리 공화국에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런데도 반공화국대결광증에 사로잡힌 박근혜패당은 이처럼 막무가내이다. 당장 명줄이 끊길 신세에 《독자제재》를 운운하며 성가시게 앵앵거리는 박근혜와 그 패당의 추악한 꼬락서니는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비참한 파멸을 당할 시각이 다가오는 지금도 헛된 망상에서 헤여나오지 못하고 동족압살을 꿈하는 역적패당에게 경고한다.

괴뢰들이 아무리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여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천만군민의 발걸음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저들이 처한 최악의 위기에서도 헤여나지 못한다는것이다. 동족대결에 피를 묻고 날뛰는 괴뢰들의 망동은 저들의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뿐이다.

허 영 민

매국협정체결에 뻗쳐진 미국의 마수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박근혜패당은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괴뢰들은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수 있게 되였다고 떠벌이면서 정보교환분야를 잠수함의 움직임을 비롯한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로 확대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일본반동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빈개불에 콩닦아먹듯이 급속도로 해치운 괴뢰패당은 조선반도유사시 쌍방사이의 병참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려고 날뛰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정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는 물론 조선반도주변나라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결탁에 만족감을 느끼며 페재를 올리는 제삼자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괴뢰당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자마자 미국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느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지》라느니 하는 희떠운 수작을 늘어놓으며 협정체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라는자도 《용감한 결정》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괴뢰패당을 극구 추어올리였다. 이것은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인 아시아의 두 주구에 대한 미국의 만족감의 표시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실상 남조선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하게 된것은 미국의 압력과 막후조종이 있었기때문이다.

남조선과 일본을 3각군사동맹의 틀거리에 든든히 얽어매고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에 적극 써먹으려는것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품어온 흉심이다.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이 먼저 군사정보공유체계를 갖추게 하고 그에 토대하여 주구들을 미싸일방위체계에 완전히 끌어들여 3각군사동맹구축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이미 미국은 괴뢰들에게 일본과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그와 관련한 협정체결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것이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론리를 주입하면서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약정을 꾸며냈다.

그런데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과거사문제로 하여 남조선일본관계가 어성버성해지고 이로 하여 3각군사공조체제까지 삐걱거리게 되자 미국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고나섰다.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도꾜에까지 날아가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 3각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하여 일본당국자에게 장시간에 걸쳐 력설한 사실과 미국회 하원에서 미국, 일본, 남조선의 공조강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 등은 미국이 압력과 회유로 두 주구를 군사적으로 결탁시키면서 3각군사동맹구축을 다그치기 위해 얼마나 분주랑을 피웠는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해말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결탁에 장애로 되던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쌍방사이의 협상이 손쉽게 타결되고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굴욕적인 《합의》가 꾸며진것도 미국의 부추김과 배후조종에 따른것이다.

남조선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의 눈길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되자 그 틈을 리용하여 괴뢰패당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에 서슴없이 나섰다.

최근 서울과 도꾜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과 관련한 실무협상들이 련이어 진행되는 속에 미국은 두 주구를 불러놓고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따른 미국, 일본, 남조선의 군사정보공유와 3자군사공조방안에 대해 모의하면서 무엇보다먼저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협력이 선행되여야 하며 이런 협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이 그 바탕으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이런 압력과 부추김밑에 박근혜패당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도적놈 소몰듯 정신없이 서두르면서 어떻게 하나 상전의 비위를 맞추어보려고 발광하였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박근혜퇴진투쟁으로 운명이 경각에 달한 청와대마녀가 미국의 옷자락에 더욱 바싹 매달리면서 상전이 요구하는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체결을 본격적으로 다그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언론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그 누구보다 원한것은 미국이라고 하면서 《국정》운영자격이 없는 박근혜《정권》이 협정체결을 서두른데는 미국의 강박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폭로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과 일본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대아시아지배전략의 실현을 위한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미쳐날뛰고 그에 박근혜패당이 맹목적으로 추종해나서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한층 격화되고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신성한 조국강토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오만하고 날강도적인 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고 동족을 압살하기 위해 미, 일상전들에게 아부굴종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박근혜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한 전민항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영 국

인권유린범죄자들의 궤변은 통할수 없다

국제무대에서 부정의가 정의를 매장하려드는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바로 얼마전에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에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또다시 강압채택하는 추태를 무릅으로써 진정한 국제적정의에 먹칠을 하고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어떻게 놓고보면 별로 놀라운것도 새삼스러울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번 《인권결의》라는것이 강권과 전횡으로 유엔무대를 란장판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이미전부터 유럽동맹과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계단식으로 확대해온 반공화국《인권》소동의 결과물이기때문이다.

천대부터 우리에 대한 제질적이며 병적인 거부감을 가지고있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주동이 되여 조작해낸 이런 《인권결의》라는것이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였을리 만무하고 또 여기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날조해낸 《인권결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놓고 가타부타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도 집요하게 어론을 오도하며 우리를 《인권범죄자》로 몰아대면서 마치도 《인권모범국》, 《인권재판관》처럼 놀아대고있는 조건에서 늘 신사연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과연 어떤것들인가를 다시한번 명백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이번에 반공화국《인권결의》가 조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나다세계정화연구소는 홈페지에 유엔무대에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날조품을 만들어내는데 앞장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진짜인권유린국들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서방의 파두정치가들은 인권을 자주적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불안정을 조성하며 종당에는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새로운 트로이목마로 리용하고있다는것, 조선을 반대하는 《인권결의》는 서방이 유엔을 강압도구로 부패시키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실례이며 이중기준의 표현이라는것, 《인권결의》가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된 선전작품이며 너무도 서투르게 포장되어있어 여기에 펼쳐진 인권유린자료들은 조선보다는 오히려 미국, 영국을 포함한 공동발기국들에 해당된다는것, 이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감행한 잔인한 인권유린행위들은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을 통해 공개되였으며 최근의 자료들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다는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미국만 보아도 가장 잔인한 인권유린으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 악의 제국이다. 실업자들이 득실거리고 집없는 사람들이 한지에서 밤을 지새며 죽어가고있는 나라, 온갖 폐품폐덕과 살인, 강탈과 같은 각종 흉악범죄들이 판을 치고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범죄발생률이 얼마나 높은지 수감자들이 계속 늘어나 미국은 세계적으로 《감옥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로 오명을 떨치고있다.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역시 미국이다. 교육, 법적보호, 보건, 선거 등에서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란폭하게 침해당하고있다. 그들은 범죄의 주요피해자로, 사법당국의 편견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수감자들의 60%이상이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들이다. 그들은 같은 범죄를 범한 백인들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다. 흑인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실험 등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감행되고있으며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에 대한 경찰들의 인권유린행위가 지속되고있다. 최근년간에 련이어 일어난 흑인들에 대한 백인경찰들의 사살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미국은 자국내에서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가장 잔악한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악의 제국이다. 《테로분자소멸》이라는 간판을 내들고 무고한 민간인들을 거리낌없이 마구 죽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세계도처에 비밀감옥들을 차려놓고 수감자들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여 온 세계를 떨썩하게 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똑똑한 주견이나 주대가 없이 미국을 상전으로, 하내비로 섬기며 추종하는 일본이나 혀끝에 자주 올리던 독자성은 시대의 쓰레기통에 아예 집어던지고 미국에 맹종맹동하는 유럽의 인권실태도 다를바 없다.

황금만능과 악욕강식의 생존법칙이 란무하는 일본에서 인권이라는것은 한갖 그림의 떡이다. 때일과 같이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하여 제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곳이 일본이다.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이다. 얼마전 한 인권문제전문가는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중등 및 고등학교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학대행위가 일본에서 우심해지고있는데 대하여 문제시하면서 이를 근절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대하는 당국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간혹 재판이 진행되여 유죄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적당한 벌금형으로 처리하고있다. 인권보장때문이라는것이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문건대 도대체 일본의 인권이라는것은 어떤것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오도되고 명색상이나마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다고 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이러하니 범죄가 어떻게 근절될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욱 성행하고있다. 며칠전에도 오사까부에서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계단에서 떨구어 죽인 다음 시체를 바다에 처넣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마네현에서는 정체불명의 범죄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3구의 시체가 발견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인권보장의 본보기나 되는것처럼 놀아대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나라들의 인권실태도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무시무시한 범죄행위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다. 지난 10월말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에서는 류혈적인 총격사건으로 2명이 죽고 1명이 부상당하였으며 펠지끄의 중부지역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는 범죄자가 자동보총을 휘두르는 바람에 일대 대피소동이 벌어지는 란무장이 펼쳐졌다. 도이췰란드의 베를린에서는 얼마전 한 진료소의사가 무장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였다. 이러한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국제무대에 나서기만 하면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운운하는 유럽동맹이 미국의 인권유린범죄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전범자이라는것이다. 이전 영국수상인 블레어와 외무상인 스트로가 미중앙정보국의 해외비밀감옥운영자료를 자국의 대외정보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보고받았으며 때문에 모든 구체적인 내막을 다 알고있었다는 사실,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존재자체를 강하게 부인하여오던 전 부스까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자기가 직접 비밀감옥운영을 허용하였다는것을 인정한 사실은 이미 영국의 BBC방송과 신문 《텔레그라프》, 《인디펜던트》 등 언론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개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유럽동맹이 입이 얼게라도 변명할 말이 없을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흰시질하기 좋아하는 미국과 유럽동맹, 일본의 인권실태는 바로 이렇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권히물보따리들을 안고 구린내를 풍기며 돌아치는 이런것들이 나서서 물격을 만들고 맹종맹동에 습관된 나라들이 허재비처럼 손을 들어 통과시킨것이 이번의 반공화국《인권결의》이다.

그 기초자료들이라는것이 나라에 쉿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제 고향과 자기 부모형제마저 저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이 목구멍과 이어진 발줄이 당장 끊어질것 같아 마구 주어섬긴 너절한 거짓자료들이라는것은 이미 다 드러난것이기때문에 구태여 론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런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 정치사기극을 펼쳐놓았다. 거짓과 사기협잡으로 없는것도 만들어내면서 남을 걸고들어 제 리속을 찡기는것이 완전히 고질화되고 체질화되여 난치로 된 적대세력들의 악습은 어데 갈데가 없다.

이번에 유엔은 미국의 꼭두각시노릇을 하였다. 사실 일이 바로되자면 유엔이 공정성의 원칙에서 인권유린범죄자들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심판하였어야 하였다. 그런데 유엔은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떠저리게 새기는것이 있다. 국제무대에서 부정의가 정의를 누르고 허위가 진실을 가리우는 철면피한 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의 《인권》소동의 롱락물이 되여 국권을 잃고 쑥대밭이 된 나라들의 참혹한 인권실태가 그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우리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나갈것이다. 미국과 그 하수인들은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남을 모해하는데 얼중할것이 아니라 제 집안의 허물부터 바로잡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리 학 남

테로와 무장충돌로 인명피해

이라크에서 11월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테로와 폭력, 무장충돌로 2 885명이 목숨을 잃고 1 330명이 부상당하였다. 1일 유엔이 이에 대해 밝혔다.

조류독감피해

프랑스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2일 이 나라 농업성은 라론느현에 있는 한 오리목장에서 2 000마리의 오리가 H5N8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되여 죽은것으로 확인되였다고 밝혔다.

실업자수

오스트리아에서 11월에 실업자수가 약 42만 9 140명에 달하였다. 1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한편 도이췰란드에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11월 30일 이 나라 련방로동성은 11월에 전국적인 실업자수가 253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성행

미국의 로스안젤스시에서 11월 30일 70대의 로인이 9살난 소녀에게 성폭행을 가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이보다 앞서 29일 이 딸리아에서는 강탈, 사기협잡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던 100여명의 불량배들이 체포되였다.

최근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는 범죄조직들이 적발되고 60㎏의 코카인 등이 압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611972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